

AUTHOR 신복윤

TITLE 개혁주의 신학의 특성들 (IV)

IN 신학정론

vol.17 no.1 (May, 1999): 161-174

일어날 성도들을 그렇게 격려하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목적 중의 하나이다.(\*)

## 개혁주의 신학의 특성들(IV)

- 聖 禮 -

신 복 윤

<조직신학·교수>

성례는 그 본질과 목적에 있어서 매우 단순하다. 성례는 쉽게 거행될 수 있고, 또 그 자체에 명백한 의미를 가지는 단순한 행동들로 이루어져 있다. 성례는 우리의 복음 이해를 도우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며, 또한 우리의 순종과 생활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성례는 본질에서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례의 실행이나 신학상의 큰 문제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기대와는 달리 성례의 거행과 이해에 있어서 큰 투쟁들이 있어 왔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사용하시는 이 단순한 표징들이 쉽게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해결되지 않는 난제들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개혁파 교회의 성례관, 특히 성찬관에 중점을 두고

다루게 된다. 주의 만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臨在의 성질에 관한 문제는 오랫동안 논쟁되어 왔고, 지금도 상당한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문제이다. 먼저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 그리고 쾰빙글리파의 성찬론을 다루고, 이어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자 한다.

###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찬 교리(化體說)

로마 교회는 “육체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성례에 임재한다고 주장한다. 司祭가 “이것이 내 몸이니라”는 성찬 제정의 말씀을 말하는 순간, 떡과 포도주는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지금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의 신체와 피로 변한다. 변화된 후에도 성찬의 요소들은 떡과 포도주의 모양과 맛을 그대로 갖는다. 그들은 떡과 포도주의 속성들은 여전히나 두 요소의 본질은 변한다고 주장한다. 떡과 포도주의 형식으로 그리스도의 물리적 신체와 피가 임재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사람이신 통일된 인격이어서, 영혼은 육체로부터 떠날 수 없으며, 신성은 영혼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성례에서 그리스도의 영혼과 신체는 그의 살과 피에 임재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떡과 포도주는 감각될 수 있는 속성들만 남고 본질은 변화하여 살과 피로 임재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내세우는 성경적 근거는, “이것이 내 몸이니라”는 성찬식 제정의 말씀과 요한복음 6:50 이하의 말씀이다. 그러나 “이것이 내 몸이니라”(마 26:26)는 말씀은 분명히 비유적인 표현이다.(요 14:6; 15:1; 10:9 참조). 그리고 요한복음 6:50 이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성찬을 먹는 자는 다 천당에 들어가지만, 그것을 먹고 마시지 못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영똥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53, 54절 참조). 그것은 로마 교회의 신자들조차도 용납할 수 없는

이론이 아닐 수 없다. 이 화체설은 라드베르트(Paschasius Radbert, abot of Carbert, 831 A.D.)가 처음으로 주장하였고, 1215년 제 4 라테란 회의에서 인노센트 3세의 체의에 의해 신조로 제정되었다.

### 루터파의 성찬 교리(共在說)

루터는 로마 카톨릭파의 화체설을 반대하고 공재설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공재설은 로마 교회의 화체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견해이다. 루터는, 떡과 포도주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남아 있으나, 몸과 피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全人格이 주의 만찬 중에 성찬의 요소들 안에, 요소들 밑에, 그리고 그 요소들과 함께(in, under, and along with) 신비롭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임재하신다고 주장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떡을 그의 손에 들으셨을 때, 그의 몸도 떡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는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다. 루터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 성례에 그리스도의 물질적인 신체와 피가 場所的으로 임재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주의 만찬에서 성찬의 요소들을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신체와 피를 “신체의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며, 단순히 신앙으로 주의 몸과 피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고 하였다.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는 자도 성찬을 받지만 그에게는 정죄가 있을 뿐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루터파는 비록 로마 교회처럼 속성의 변화 없는 본질 변화의 반복적인 기적을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로마 교회의 견해를 크게 개선한 것은 못되었다. 그들은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것이 내 몸에 수반하느니라”는 뜻으로 해석하였으니 큰 잘못

을 범한 것이다.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화하신 人性이 遍在하다고 하는 있을 수 없는 교리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그들은 성찬이 시행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그리스도가 장소적으로 임재하신다고 가르쳤던 것이다.

### 쯔빙글리파의 성찬 교리(記念說)

쯔빙글리(Zwingli)는 주의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신체적 임재를 부정하고, 성찬은 다만 그리스도에 대한 신자의 신앙고백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그는 성찬의 의의를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하여 행하신 일에 대한 記念에서, 또는 참여자의 신앙고백의 행위에서 찾았던 것이다. 쯔빙글리는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아 모든 것을 이지적으로 해석한 결과 성찬을 다만 그리스도에 대한 신자의 신앙고백으로 보고, 성찬을 통하여 신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마치 눈 앞에서 그리는 것과 같이 볼 수 있으며, 그들의 신앙을 굳게 하고, 죄의 용서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며, 성결에 이르는 힘을 얻고, 미래의 희망을 더욱 명확하게 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쯔빙글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전 11:24, 25)는 주님의 말씀이 성찬에 대한 바른 해석의 열쇠로 보고,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것은 …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의 “이다”를 다만 “뜻한다”의 뜻으로 풀이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쯔빙글리의 성찬관의 전부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의 진술 가운데는 성례에 대한 보다 깊은 의의를 지적하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성찬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를 위하여 행하신 印號 혹은 보증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개념을 공정하게 다루지 못한 것이 확실하다.

우리는 쯔빙글리에게서, 주의 성찬은 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단순한 표징, 혹은 상징이며, 신자의 신앙고백의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우리는 또한 그의 성찬 교리에서 두드러지게 모든 신비주의적 요소를 제거하려는 경향을 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찬에서 하나님의 보증보다는 신자의 보증을 더 강조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신체를 받아먹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며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신뢰를 의미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 칼빈의 성찬 교리(靈的 臨在說)

1. 칼빈은 로마 카톨릭파와 루터파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쯔빙글리의 견해에 대하여도 반대하였다. 그의 개념은 양자의 중간적 입장이었다. 그는 성찬에 있어서 육체적 또는 장소적인 임재 대신에 그리스도의 靈的臨在을 가르쳤다. 그는 쯔빙글리파와도 그 의견을 달리하여 성례의 보다 깊은 의의와 신자가 성찬에서 기뻐하는 神秘的交際를 강조하였다. 더욱이 그는 성찬을 신자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보증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印號요 保證으로 보았다. 십자가 상의 그리스도의 희생의 공로와 효과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합당한 수찬자에게 제공되며 실제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하기도 하였다.

2. 칼빈의 신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례의 신학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T. H. L. Parker, *John Calvin*, p.50). 하나님은 사람과 만나실 때 직접 만나지 아니하시고, 전달이나 가시적인 상징을 수단으로 하여 만나신다. 이 성례만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요, 신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수단이다. 그래서 칼

받은 교회를 성례전적 교제로 보았다. 그는 질서가 잡히고 잘 다스려지고 있는 교회라면 주님이 제정하신 성례가 자주 거행되고, 모든 신자들이 이 예식에 마땅히 참석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Inst.*, IV. 17, 43~44).

칼빈은 로마 교회가 7성례를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성례는 두 가지 뿐이라고 하였다. 하나는 세례요, 다른 하나는 성찬이다(*Inst.*, IV. 14, 18, 19, 20). 이 둘만이 성경에서 입증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명백해 보여준다고 그는 믿고 있었다. 세례는 우리가 씻음을 받아 정화되는 것을 증거하며, 성찬은 우리의 구속을 증명한다. 물이 정화를 상징한다고 하면, 피는 구속을 상징한다. 이 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되는데, 요한의 말대로, 그는 물과 피로 오셨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요일 5:6). 즉 그리스도는 정결케 하시고 구속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Inst.*, IV. 14, 22). 이와 같이 칼빈에게 있어서 두 성례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요약해 주며, 죄의 사유와 구속을 의미한다.

3. 이 성례는 말씀에 의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칼빈은 주장한다. 말씀 없이는 성례의 요소들은 단순한 물이요, 떡과 포도주에 지나지 않는다. 칼빈은 처음부터 말씀과 성례를 평행적으로 다루었다. 물론 이 둘을 동일한 평면에 둔 것은 아니다. 성례는 말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보충적인 것이지만, 말씀은 성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완성적인 것이다(*Inst.*, 14.3).

칼빈은 성례를 정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례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셨다고 설명한다. “성례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신앙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비의 약속을 우리

양심에 인쳐 주시는 유형적 표징이며, 우리편에서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을 증명하는 의식이다”(*Inst.*, IV. 14.1). 칼빈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부연한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보잘 것 없이 미약하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받쳐 주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유지되지 않는 한, 그것은 흔들리고 동요하며, 비틀거리다가 마침내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자비에 따라 자신을 조절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다. 실로 우리는 항상 땅 위를 기어다니며, 육신에 집착하고, 영적인 일에는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상상도 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셔서 지상적인 요소들을 사용해서까지 우리를 자신에게 인도하시며, 육신적인 것에서 영적 은사의 거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Inst.*, IV. 14.3).

영적 양식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어지지만, 성찬도 역시 복음의 약속을 보증하고 날인하며, 감사의 마음을 깨우치고, 생활의 성결을 가르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성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거울이다(OS I. 505, 이것은 *Calvini Opera Selecta* 제 1권 505 쪽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성찬의 실체요 기초로서 떡과 포도주라는 기구를 통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다고 칼빈은 주장하였다(*Ibid.*, 508).

4. 성찬론의 문제점은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 로마 교회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분명히 하늘에 있으나, 사제가 성찬식에서 성찬 제정의 말씀을 외을 때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실제적으로 변한다. 이것은 이적에 의해서 된다. 의견상으로는 떡과 포도주는 그대로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변화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는 것이

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성찬 교리는 화체설이라고 불리어 진다.

루터는 이 성찬 제정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 즉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 속에, 그 밑에, 그리고 그 요소들과 함께 실제적으로 임재하신다고 보았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주님의 몸이 식탁 위에 있고, 내 손에 쥐어지고, 내 입에 넣어진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어거스틴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현재 하늘에 계신다(*Inst.*, IV. 17.26). 그리고 “하늘”은 일정한 장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는 성찬식에 현실적으로 임재하실 수 있는가?

칼빈은 루터파가 “이다”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취함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장소적인 임재를 주장한다고 말하고, 결합, 혹은 장소적 접촉, 또는 조잡하게 생각된 어떤 포섭의 방법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하였다(*Inst.*, IV. 17.14)

칼빈은 “이다”라는 말씀을 루터처럼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례전의 말로서 성령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였다. 그러므로 칼빈의 성찬론은 자신의 성령론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그의 사상은 성례의 요소들 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고 하는데 대한 항거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말씀과 표징,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임재 하시기 때문이다(W. Niesel, *Theology of Calvin*, p.223).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하늘에 있으며, 우리는 이 지상에 있다(*Inst.*, IV. 17.26).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찬식에 임재하시어 하나님과 신자와의 관계를 결속시키신다.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연합을 말할 때, 성경은 이를 성령의 역사라고 말한다(*Inst.*, IV. 17.12.24).

칼빈은 기독교 강요 제 4편 17장에서 성찬론을 훌륭하게 정리하였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살과 피에도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에 실제적으로 임재하는 것이

다”(*Inst.*, IV. 17.3). 이것이 칼빈의 성찬론의 요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칼빈은 성찬식과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고 함으로 장소적 임재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켰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강조하지만, 실제적인 살과 피가 성찬의 요소들과 함께 주어진다고 보지 않았다(*Inst.*, IV. 17.10). 그것은 영적인 임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칼빈의 성찬관을 靈的臨在說이라 부른다. 칼빈은 성찬에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강조하였으며, 이 일치는 성찬식 그 자체의 역사보다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였다.

쯔빙글리의 입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記念說, 혹은 상징설이다. 그에 의하면, “이것이 내 몸이니라”, “이것이 …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라틴어의 est(이다)는 significatio(표시, 혹은 상징)이다. 이것이 바로 쯔빙글리의 입장이다. 떡과 포도주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뿐이다. 성찬식 중에는 실제로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한 표시요, 이 표시를 통하여 신자가 신자임을 표명하는 것뿐이다. 그것은 신앙고백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의 표시이다. 성찬식은 다만 신자가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표명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신자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뿐이며, 성례는 신앙의 소유자에게 아무 것도 주지 못한다(Zwingli, *De vera et falsa religione*, CR. vol. XC, 760f, cited in Wendel, p.334).

이에 대하여 칼빈은 신앙은 성령의 역사이지만, 그 대상은 말씀과 성례라고 하였다(OS I.118). 성경의 계시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성례를 사용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칼빈은 믿음 자체가 완전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불완전하고 가변적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 죄인으로 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믿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성례가 필요하고, 특별히 성찬이 필요한 것이다. 1559년 판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은 성례를 단순히 신앙의 증거로만 생각한 쾰링의 견해를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Inst.*, IV. 17.6). 루터파도 쾰링의 기념설을 반대하고, 성찬은 신앙고백 이상의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성례는 신자의 신앙고백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시요 증거가 되며, 또한 성례에 참여하는 자에게서 신앙을 일으키고 강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Augustburg 신앙 고백 13)

5. 루터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이다. 떡과 포도주는 성찬 제정의 말씀이 선언될 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이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는 비록 위선자나 배신자가 있을지라도 그들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는 것이다. 물론 떡과 포도주를 먹었다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는 효력을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루터파의 성찬론의 특징은 간단히 말하면 이렇다. *manducatio oralis*,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입으로 먹고 마신다. 그리고 *manducatio indignorum oralis*, 즉 합당하지 않은 자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다. 신자는 입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표징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이다.

칼빈은 이와 같은 루터파의 성찬론을 반대하였다. 수찬자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적으로” 받는 것이다. 입으로 먹고 마시는 것은 떡과 포도주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칼빈은 배신자, 불경건자라도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루터의 사상을 거절한 것이다. 칼빈에 의하면, 성찬에 참여하는 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는 것은 아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떡과 포도주를 받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며, 신앙이 없으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주시지 않으신다. 그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마치 굳은 바위에 내리는 비가 그 속에 침투 할 수 없기 때문에 흘러내리는 것처럼, 불경건한 자들이 자신의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배척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속에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신앙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씨앗이 불 가운데서 싹을 낸다는 말에 못지않게 불합리한 사상이다”(*Inst.*, IV. 17.33).

루터와 칼빈은 다같이 성찬에 있어서의 그리스도의 임재를 믿고 있다. 루터에 있어서 그것은 성찬의 요소들 속에, 그 요소들 밑에, 그리고 그 요소들과 함께 장소적으로 임재한다. 그러나 칼빈에 있어서는 성령에 의한 임재이다. 칼빈은 루터에게서 아직 로마 카톨릭파의 잔재가 남아있음을 발견하였다. 쾰링과 로마 카톨릭파의 두 성찬 견해도 그들 나름대로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쾰링은 “이성”으로 그것을 납득시키고, 로마 카톨릭파는 “이적”이라는 측면을 강조한다. 그러나 양자는 다같이 성경적 이해가 아니다.

## 개혁파 교회의 입장

칼빈은 쾰빙글리파와 루터파의 중간 입장을 취했다. 칼빈은 쾰빙글리와 그리고 다른 모든 개혁파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로,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이 떡은 내 몸을 대표한다”는 뜻이다.

둘째로, 하나님은 성례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떡과 포도주의 먹고 마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속의 모든 성례적 유익들을 주신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현재 하늘나라에 있지만, 떡과 포도주를 받는 행동에서 신자에게 생명의 감화를 전달한다. 이 감화는 실재적이요 활력적이지만, 그러나 1. 그것은 신비적인 것이지 물리적인 것은 아니다. 2. 그것은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다. 3. 그 감화는 성례 참여자의 신앙의 행동이 있을 때에만 베풀어진다.

이 견해는 주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4권 17장), 프랑스의 갈리아 신앙고백(Gallican Confession, 1559), 스코틀랜드 신앙고백(21조, 1560), 그리고 벨직 신앙고백(35조, 1561)에서 진술되었다.

칼빈은 이 문제에 관해서 루터파와 개혁파 교회가 서로 화목할 희망이 전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자, 쥐리히(쾰빙글리파)와 제네바(칼빈파)를 하나의 성찬교리를 통하여 연합해 볼 생각으로, 1549년에 불링거와 함께 티구리누스 一致信條(Consensus Tigurinus)를 작성하였다. 두 파는 다같이 일치신조를 받아 들였으며, 일치신조가 진술하는 교리는 그 후부터 지금까지 개혁파 교회에서 인정되어 왔다.

일치신조는 외적인 형식으로는 쾰빙글리가 주장한 입장에 더 가까운 교리를 진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칼빈주의적이다.

일치신조가 제출하는 교리는 불링거(Heinrich Bullinger)가 작성한 『제 2 스위스 신앙고백』(Second Helvetic Confession, 1564), 멜랑톤의 제자 울시누스(Ursinus, 1534~1583)가 작성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Heidelberg Catechism, 1562), 영국 교회의 『39 신조』(The 39 Articles, 1562),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Westminster Confession, 1648) 등 여러 신앙고백서에서 강하게 진술되었다.

이 여러 표준 문서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다같이 동의한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대하여.

1. 그리스도의 인성은 하늘에만 존재한다.
2. 神人으로서의 그리스도의 品位는 도처에, 또는 항상 편재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통은 살과 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全人格으로 한다. 성례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임재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도 아니며, 장소적인 것도 아니다. 다만 성령을 통하여 은혜롭게 영혼을 감화하는 것이다.

둘째로, 신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에 대하여.

수찬자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實體가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찢겨지고 흘리신 몸과 피의 祭祀的 效能이다.

셋째로, 수찬자가 몸과 피를 먹는 것에 대하여.

1. 수찬자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양식으로



든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다.

2. 그것은 영혼으로 먹는 것이다.

3. 그것은 영혼의 입, 혹은 영혼의 손인 신앙으로 먹는 것이다.

4. 그것은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혹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먹는 것이다.

5. 그것은 주의 만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이 동작하는 때에 되어지는 것이다.

개혁파의 이 신조들은 칼빈의 사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성례들은 은혜의 유효한 상징들이다. 따라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마실 때 은혜의 전달이 있게 된다. 이 은혜의 전달을 통하여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실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그의 십자가의 고난 당하신 몸과 흘리신 피로, 영생을 향한 나의 영혼을 직접 먹이시고 소생시켜 주심을 알게 된다. 신자들은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며, 그리고 이러한 양육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신앙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만 실제로 받아들여지며, 이 일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되어진다. 이것이 개혁파의 성찬교리이다.

후기 개혁파 신앙고백서: - 한결같이 칼빈 사상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아주 현저하게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갈리아 신앙고백(1559), 벨직 신앙고백(1566), 39 신조(1562), 제 1 스코틀랜드 신앙고백(1560), 제 2 스위스 신앙고백(1566),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1563),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1646) 등이다. 그 중에서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리고 제 2 스위스 신앙고백이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 (\*)

## 개혁주의 예배원리와 갱신

김재성

<조직신학·조교수>

### 서론

이 논문은 한국교회의 예배를 재구성하려는 근래의 시도들을 염두에 두고, 개혁주의 예배 원리를 조망해 보려는 것이다.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은 내부적으로 예배의 갱신을 가져왔고, 로마 카톨릭과는 현저히 다른 예배 형식과 내용을 창출하여 냈었다. 이제 다시 그 정신을 갱신하면서 한국 교회의 예배 정립에 도움이 되도록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1990년대 후반, 한국 교회는 '열린 예배'라는 새로운 실험으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기본 인식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기독교는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항상 추구한다. 따라서 변천하는 시대 속에서 말씀에 대한 참된 깨달음이 있다면 교회의 예배가 달라질 수